



COVER STORY | 2022년 KAIST Startup Tech Plaza 스케치

KAISTian, 꿈을 향해 던져라!

2022년 KAIST Startup Tech Plaza 스케치

글 | 김택원 동아에스앤씨 부장
사진 | 송광빈 동아에스앤씨 PD

어떤 사람들은 야구를 불평등한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투수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쏠린다는 이유다. 그도 그럴 것이 투수는 매회 혼자서 상대팀 전체를 상대한다. 동료 야수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타자가 공을 때리는 순간까지는 팀 전체의 수비가 투수에게 달렸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마운드에 올라선 투수는 긴장의 연속이다. 투수의 손에서 공이 빠져나오는 매 순간마다 경기의 향방이 바뀐다. 그리고 투수가 어떤 고민을 했든, 타자가 어떤 전략을 짰든 모든 것이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나 포수의 미트로 달려들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이 결정된다.



오프닝 연설중인 김영태 KAIST 창업원 원장. KAIST가 소부장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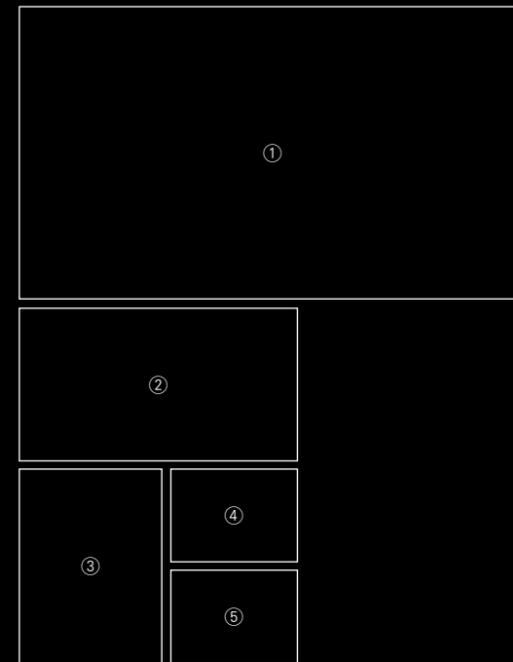
이강수 KAIST 동문 벤처캐피탈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소부장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피칭,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순간

투자설명회를 다른 말로 '피칭'이라고 한다. 내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한들, 내가 아무리 훌륭한 기업을 구상했다 한들 먼저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는 이미 기발한 사업 아이디어가 넘쳐난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긴 시간 동안 들어줄만한 투자자도 세상에는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어떻게든 바쁜 투자자들의 시간을 쪼개서 관심을 갖도록 설득해야 한다. 마치 투수가 던진 공이 경기의 운명을 가르듯, 그 잠깐의 설명이 창업이 순조로울지, 가시밭길일지를 결정한다.

좋은 투수가 되기 어렵듯 피칭도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 따라서 타인이 나에게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다면 최대한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 기술이야 어떻게든 연습한다 치더라도 투자자를 만날 기회를 얻는 것부터 난관이다. 연구와 학업에 몰두하다 이제 막 스타트업 생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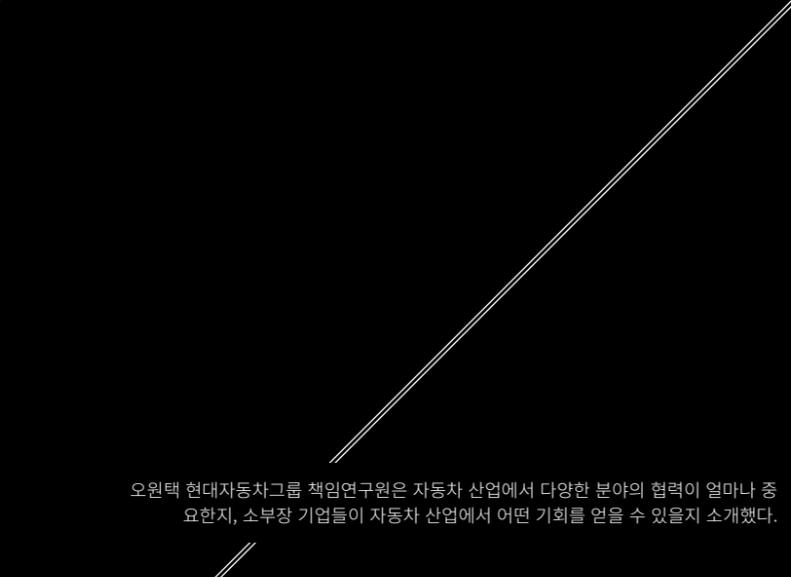
- ① 2022년의 두 번째 테크플라자 행사장 전경. 그리 크지 않지만 아늑하게 꾸며진 이 공간에 80여 명이 찾아와 성황을 이뤘다.
- ② 테크플라자 참석자들. 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자, 대기업 관계자가 고르게 참석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 ③ 발표자에게 질문하는 참석자. 테크플라자는 90분 내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 ④ 발표자들은 참석자의 사소한 질문에도 성의껏 답하며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 ⑤ 이날 행사는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병행하여 진행됐다. 행사 영상은 KAIST 창업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계에 들어선 초보 창업자에게는 특히 그렇다. 열심히 투구 능력을 갈고 닦았지만 정식으로 마운드에 오를 기회를 찾지 못하는 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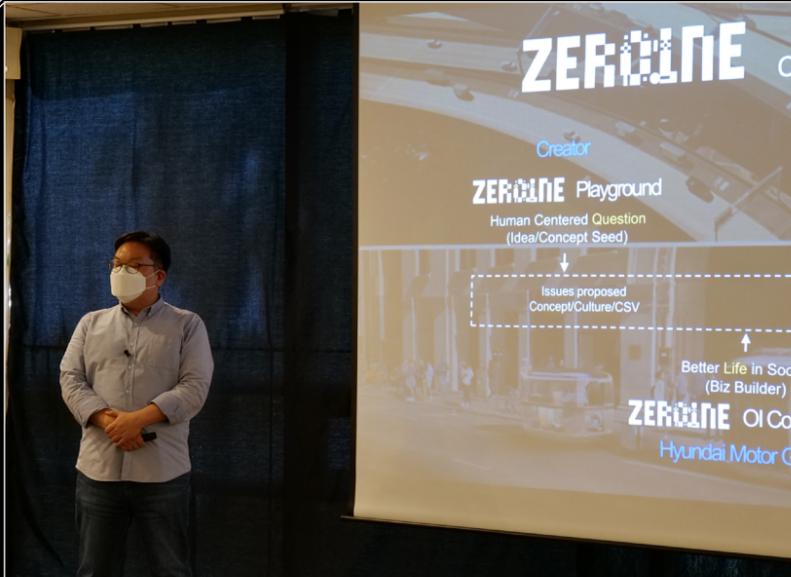
그래서 필요한 자리가 공개 피칭 포럼이다. 여러 창업자와 투자자, 사업가가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사업을 논의하는 행사다. 창업자에게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쌓느라 고심할 필요 없이 사업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기회, 투자자에게는 시간을 아껴서 여러 투자처를 한번에 찾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연구와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개최하는 피칭 포럼은 기술적 기반이 탄탄해 참신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풍성하게 접할 수 있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KAIST 역시 창업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장인 'Startup Tech Plaza(이하 테크플라자)'를 마련해서 KAIST 출신 창업자에게 기업인으로서 성장할 '마운드를' 제공하고 있다. 테크플라자는 IR(투자) 피칭뿐 아니라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자인 KAIST 교수들이 공유하는 최신 기술 트렌드, 각계에서 활약하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강연, 창업자를 위한 1:1 상담과 네트워킹 등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했다.



특별강연을 통해 소부장 분야 창업의 절차와 사례를 소개한 윤용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는 풍부한 경험으로 터득한 창업 팁을 아낌없이 공유했다.



오원택 현대자동차그룹 책임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부장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소개했다.



권진우 LG이노텍 팀장은 관련 핵심 사업을 소개하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소부장 분야에 활발하게 뛰어들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다른 창업과는 다르다, 소부장 창업의 ABC

5월 4일, 성남시 판교에 자리잡은 KAIST 창업원 판교센터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30평 가량의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을 빼곡하게 채운 사람들의 열기로 아직 서늘한 봄날씨에도 불구하고 더위마저 느낄 정도였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테크플라자를 찾은 사람들이다. 지난 4월 KAIST 창업원은 과학기술의학을 주제로 올해 첫 번째 테크플라자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소재, 부품, 장비(이하 소부장)를 다루는 2022년 두 번째 테크플라자로, 이강수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파트너 겸 KAIST 동문 벤처캐피탈 회장을 비롯한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관계자 22명, 오원택 현대자동차그룹 제로원팀 책임매니저를 비롯한 대기업 관계자 12명이 유망한 투자처를 찾고자 자리에 함께 했다.

김영태 KAIST 창업원 원장의 오프닝과 이강수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행사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 원장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소부장 분야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니즈가 크지만, 관련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ICT 분야에 치우친 감이 있다”며 “KAIST 창업원이 소부장 분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풍성해졌으면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소개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이 회장은 소부장 분야에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날 참여한 기업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테크플라자의 본행사는 윤용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윤 교수는 소부장 분야 스타트업이 팀업부터 기업공개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소개했다. 윤 교수 자신이 스타트업 창업이나 자문 경험이 풍부하고 학생들의 창업을 지도한 경험도 많아 창업 현장에 요긴한 실전적 정보가 돋보였다. 윤 교수는 “창업하려면 기반기술과 특허가 필요하고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하며 수익 창출에 드는 비용이 커서 진입장벽이 높지만, 그만큼 한번 창업에 성공하면 큰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소부장”이라며 “기술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KAISTian들이 도전할만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후 두 대기업의 소부장 분야 사업 소개가 이어졌다. 기술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대기업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설명하는 자리다. 첫 번째 대기업 관계자로 나선 현대자동차그룹 제로원팀의 오원택 책임연구원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소부장 분야 스타트업과 협력 가능한 방안을 소개했다. 오 책임은 “현대자동차그룹은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폭넓은 분야의 기업들과 교류한다”며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소부장 분야 기업과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두 번째 대기업 관계자로 나선 LG이노텍 기술인큐베이션팀 권진우 팀장은 LG이노텍의 미래 핵심 분야 사업을 소개하며 소부장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소부장 분야에서 AI와 빅데이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 이를 이용한 테스트 시뮬레이션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디케이랩의 창업자이자 기술고문인 김일두 KAIST 교수. 독자적인 생산체계까지 갖춰 '준비된' 소재 기업이다.



이너시아의 공동창업자인 박지혜 COO. 소재 기업이면서도 소비재 시장을 노리는 참신함을 보여줬다.



코스모스랩의 이주혁 대표. '슈퍼커패터리'라는 새로운 시장을 노리고 있다.



UNITECH3DP의 김상래 대표. 의료 환경의 변혁을 꿈꾸고 있다.



웨이브랩의 전원주 KAIST 교수. 예비창업자로서 기술의 전망을 소개했다.

탄탄한 기술로 시장에 도전하는 5번의 '직구'

테크플라자의 본론적인 피칭에는 5개 기업이 참여했다. 5개 기업 모두 소부장 스타트업으로서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하기보다는 견실하고 탄탄한 기술을 내세웠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첫 피칭 연사로 아이디케이랩의 창업자이자 기술고문인 김일두 교수가 나섰다. KAIST 신소재 공학과 교수로서 교원창업에 도전한 김 교수는 특정 화합물과 결합하는 염료가 적용된 나노섬유 센서 기술을 선보였다. 아이디케이랩의 '염료결착 나노섬유'는 미량 물질의 존재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해서 유독가스 유출을 검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복잡하고 예민한 장비가 없는 천 형태라서 적용이 쉽고 간편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김 교수는 작은 기업임에도 나노섬유를 직접 생산한다는 것이 가장 강점이라며 향후 바이오센서 등에도 응용하여 헬스케어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순서로 나선 이너시아 공동창업자인 박지혜 COO(최고운영책임자)는 이너시아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성 용품을 만드는 엔지니어들'로 소개했다. 이너시아는 식물성 소재에 전자빔을 적용해 중합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천연물 유래 고흡수제인 셀라텍스를 개발했다. 박 대표는 셀라텍스가 기존의 고흡수폴리머(SAP, Super Absorbent Polymer)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이나 화학독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한다며, 실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셀라텍스를 적용한 생리대가 기존 생리대 대비 우수하게 평가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너시아는 특히 소부장 기업이면서도 생활에 밀착한 니즈를 포착하여 B2C 시장에 뛰어 들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세 번째 연사인 코스모스랩의 이주혁 대표는 자신들의 제품을 '슈퍼커패터리(supercapattery)'라는 신조어로 표현했다. 슈퍼커패시

터(super capacitor)와 배터리(battery)의 합성어로, 에너지 밀도가 크고 10만 번 이상의 고속 충·방전이 가능한 슈퍼커패시터와 에너지 저장밀도가 높고 저렴한 배터리의 장점을 결합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코스모스랩의 슈퍼커패터리의 성능을 실증 결과로 보여주면서, 당장은 캠핑용 파워뱅크나 비상전력원 시장에서 납축전지의 대체재 자리를 노리겠지만 향후 대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로 나선 UNITECH3DP의 김상래 대표는 대학원 창업 기업으로서 KAIST의 3D 프린터 연구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자는 것이 UNITECH3DP의 창업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UNITECH3DP는 다품종 소량생산, 맞춤형 제작이라는 3D 프린터의 강점을 의료 시장에 접목하려 한다. 특히 기계적 특성이 약하고 속도가 느리며 비싸다는 기존 의료용 3D 프린팅 장비의 한계를 '다중상 출력'이라는 기술력으로 극복함으로써 모든 병원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마지막 피칭 연사로 나선 웨이브랩의 전원주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는 '예비' 창업자로서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기술의 특징을 소개했다. 전 교수는 기존 흡음제의 한계를 소개하면서 웨이브랩의 메타물질 기술이 어떻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지 설명했다. 아직 창업 단계에 이르지 않아서 구체적인 제품 설명은 없었지만 웨이브랩의 신기술이 이끌 시장의 변화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90분 가까이 이어진 테크플라자는 소부장 분야 창업의 실전 팁과 현재의 기술동향을 개관할 수 있는 기회였다. 김영태 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KAIST 창업원이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 기존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커뮤니티이자 기술창업의 본산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 산업 발전의 씨앗을 뿌리는 인재양성기관으로 출발한 KAIST가 50년의 반환점을 지나 다시 한 번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토양을 제공하기를 기대해본다. [KAISTian](#)



+ 꽃향기, 이젠 눈으로 보세요!

KAIST 기계공학과 유체 및 계면 연구실 김형수 교수와 생명과학과 생태학 연구실 김상규 교수 연구팀이 공동 융합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꽃향기가 나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가시화하여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두 연구팀은 기존 꽃향기 측정 방법과 완전히 다른 측정법으로 통해 백합에서 나오는 꽃향기를 시공간으로 직접 측정했다.

>> 더보기



+ 움직이는 가상 물질을 입체적으로 질 수 있는 새로운 가상현실 컨트롤러 개발

KAIST 산업디자인학과 안드리아 비앙키 교수 연구팀이 회전하는 원판을 활용한 6-자유도 햅틱 컨트롤러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 움직이는 물체의 이동 속도, 방향과 두께감을 표현하는 '스피노키오' 컨트롤러를 개발했다. 이 컨트롤러는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가 업지와 검지로 쥐고 있는 물체가 손가락 사이를 지나가는 속도, 방향과 두께의 감촉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 더보기



+ 암, 뇌졸중, 치매 등 각종 난치병 진단하는 멀티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탐지하는 고성능 기술 개발

KAIST 신소재공학과 장재범 교수, 전기및전자공학부 윤영규 교수 연구팀이 기존 기술 대비 5배 이상 더 많은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멀티 마커 동시 탐지 기술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특수한 시약이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암의 정확한 진단 및 항암제 개발, 새로운 단백질 마커 발굴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더보기



+ 마찰전기의 발생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

KAIST 물리학과 김용현 교수 연구팀이 수천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로 알려진 마찰전기 발생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연구팀은 기존에 알려진 실험적 사실을 정성적으로 기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량적으로도 이동 전하량을 설명해 낼 수 있었다. 기존에는 정량적으로 마찰전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었다.

>> 더보기



+ 익명의 50대 독지가, KAIST에 300억 기부

KAIST가 익명의 50대 독지가로부터 300억 원 상당의 전 재산을 기부받았다. 익명의 기부자는 "KAIST가 에너지가 넘치면서도 순수한 학교라는 인상을 받았다"라며, "나의 기부가 KAIST의 젊음이라는 강력한 무기와 결합해 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 더보기



+ 이상엽 특훈교수, 덴마크 공대 명예박사학위 수여

KAIST 이상엽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가 덴마크 공과대학교로부터 명예기술박사학위를 수여했다. 1829년 설립된 덴마크공과대학교는 공학과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인정받는 북유럽 최고의 공과대학이다. 아너스 비야클리브 덴마크공과대학 총장은 "미생물세포공장을 위한 획기적인 시스템대사공학을 창시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 더보기



+ 전산학부 김주호 교수 연구팀, ACM CHI 2022 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및 우수논문상 수상

KAIST 전산학부 김주호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린 미 컴퓨터학회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과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 학술대회는 HCI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회로, 최우수논문상은 전체 논문 중 상위 1%의 논문, 우수논문상은 상위 5%의 논문에 주어지는 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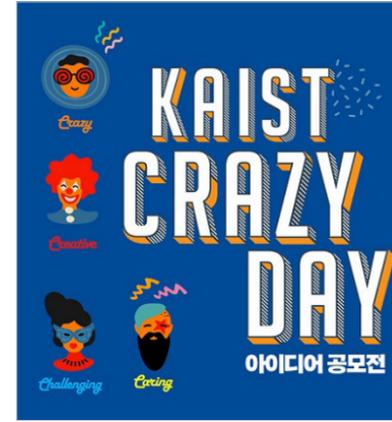
>> 더보기



+ 조수미 공연예술 연구센터 개소식 및 조수미 초빙석학교수 특강 개최

KAIST 조수미 초빙석학교수가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5월 13일 특별 강연 '그.리.다.'를 진행하고 '조수미 공연예술 연구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조수미 초빙석학교수는 '최정상 소프라노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극복한 역경'과 '세계 일류로 도약하기 위한 마음가짐', '미래 공연 예술에 도입될 기술과 기대감'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 더보기



+ Crazy Day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선정

KAIST가 5월 6일 'Crazy Day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5개를 선정하여 5월 18일 최종 발표했다. KAIST는 대학의 실험정신과 혁신 정신을 담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하고자 'Crazy Day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개최한 바 있다. 공모 결과 총 847건의 응모작이 접수됐으며 창의성, 대중성, 현실성, 윤리성을 기준으로 총 3단계의 내부 심사를 거쳐 대상 1개, 최우수상 1개, 우수상 3개를 선정했다.

>> 더보기



+ 과기정통부,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사업에 우리학교 선정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양성사업' 단독형 2022년 신규과제에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컨소시엄형 1개와 단독형 1개를 선정해 향후 7년간 총 465억원을 지원한다. KAIST는 단독형에 선정돼 올해 6월부터 2028년까지 약 7년간 약 133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 더보기

+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지원사업에 우리학교 선정

KAIS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인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5억원, 이후 단계평가를 거쳐 연간 10억원, 최장 6년간 총 55억원을 KAIST에 지원하고, KAIST는 올해 가을학기부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 더보기

